

하남산단 화학물질 유출 차단 장치 설치

'풍영정전 오염사고' 재발 방지

유해물질 저류지로 유입 처리

419억 투입...2021년까지 설치

하남산단 사고수 유출로 발생하는 풍영정전의 수질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완충저류 시설이 설치된다.

광주시가 총 419억원을 들여 만드는 완충저류시설은 산단 내 유독물질과 오염물

질을 많이 함유한 빗물과 사고로 발생하는 유출수가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시설이다.

이 시설은 낙동강수계에만 설치·운영됐지만, 2014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이 개정돼 전국으로 설치 의무가 확대됐다.

하남산단은 1991년 조성된 노후 산단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연간 8만t, 폐수 유출량이 1일 1만t에 달한다.

그동안 산단에 있는 풍영정전은 수안·운남지구를 거쳐 영산강으로 흐르지만 산

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름 또는 사고수 유출 등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시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시는 올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2018년에는 설계용역, 2021년까지 총 419억원을 투입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해당 시설이 설치되면 오염물질을 완충저류지로 유입 처리해 풍영정전과 영산강 오염사고를 예방하게 된다. 영산강 수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 수안지구와 운남지구 등 풍영정전 전체 구역의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풍영정전 비점오염원 저감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김석준 광주시 생태수질과장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저류지 상부에는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LED 조명 교체 아파트

요금 아끼고 최대 300만원 받고

광주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문에 설치된 일반조명을 LED등으로 교체해 에너지절감 실적이 우수한 아파트 단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광주시는 2014년부터 LED조명보급 확산을 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명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 지난해까지 80개 단지 아파트에 총 1억16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올해도 11월30일까지 LED등으로 교체한 아파트에 대해 에너지절감 실적, 지역생산제품 사용실적, 교체비 등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LED등으로 교체하면 전기요금은 절반 이하로 절약되는 반면, 기존보다 두배 이상 밝게 개선돼 입주자들의 호응이 높다.

문의 광주시 에너지산업과 062-613-3793. /최권일기자 cki@



모내기 대비 농기구 수리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안용훈)이 최근 광산구 송대사업소 처리장 인근 마을 주민들의 농기구를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처리장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광주환경공단 제공>

이재명도 엄지척...광주시민총회 참여의식 빛났다

정책 전시·토론 500여명 참여

광주시, 거리투표 정책 2건 추진

제18대, 제19대 대선 당시 높은 투표율에 이어 광주 시민들의 높은 정치 참여의식이 또 한번 화제다.

제52회 광주시민의 날을 기념해 치러진 '금남로 시민정치 페스티벌'의 메인 행사인 '광주시민총회'에 예상을 뛰어넘는 시민들의 참여 열기가 드러났다.

애초 주최 측은 100여 명을 예상했지만, 이날 행사가 시작되면서 순식간에 500여 명이 모여 들었다.

지난 21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앞에는 청년과 학생을 비롯해 중년 부부와 유모차를 끌고 행사장을 찾은 젊은 부부 등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구름 관중이 몰려들었다. 선거 때마다 높은 투표율을 자랑하며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해 온 광주 시민들의 의식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날 시민총회는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개발해 제안하고 광주시가 이를 채택하는 '광장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행사장에는 마을민회에서 제안한 100개의 정책과 조례가 전시됐고, 시민들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 뒤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정책·조례에 스티커를 붙였다.

총회에 앞서 마을민회가 제안한 100가지 정책 중 8건을 사전에 선정하는데 이어 현장에서 시민 스티커 투표를 통해 2건을 추가 선정했다.

이렇게 선택된 10개의 정책·조례를 대상으로 채택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통해

10건 모두가 최종 채택됐다. 이 정책·조례들은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광주시의 정책이 될 예정이다.

이날 시민총회는 시민들의 정책 제안에 온전한 시장을 비롯한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장휘국 시교육감, 구청장, 구의원들이 나서 직접 답변을 하거나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청년정책 발표 시간에는 온전한 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간의 즉석 정책 배틀도 이어졌다.

먼저 윤 시장은 "시민총회의 모든 과정에 시장인 저를 비롯해 시 간부들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고 순수하게 시민들이 토론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서 제안해 주신 것들은 한국경제의 모순이 개선되고 진정한 지방자치, 균형발전의 틀만 갖춰진다면 광주

는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동안 행정은 성남시가 가장 잘한다고 자부했는데 오늘 광주에 와보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며 "직접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현장이라 보기 좋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주민들이 자신의 문제를 직접 결정하고 집행에 참여하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 진짜 자치이고 광주시민이 광주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높게 평가했다.

그는 이어 "시민총회가 모범적인 시민참여의 모델을 만들었다"며 "성남시도 이 형식을 그대로 가져가 꼭 한 번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에서 왔다는 한 참여자는 "광주시민들이 역사적인 공간 금남로에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내는 모습을 보니 무척 부럽다"며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한 광주의 시도를 많이 배우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권일기자 cki@

청년 교통카드로 면접 보러 가자

6만원씩 5개월 간 청년수당

다음달 12일까지 신청 모집

광주형 청년수당 두 번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광주시는 오는 6월12일까지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은 미취업에 따른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광주형 청년 교통수당이다.

일경험 수당으로 지난 5월부터 지원을 시작한 '광주청년드림'(Dream)사업에 이은 두 번째 청년보장 사업이다.

청년들로 구성된 협의체인 '광주청년위원회'가 지난 2015년 제안한 '광주청년카드' 발행 도입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정책연구를 통해 대상범위를 마련하고 청년도시광주 TF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2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이며,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청년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



청년당당 교통카드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한달에 6만원씩 5개월 동안 교통비가 지원되고, 매월 카드에 비용이 충전돼 버스, 지하철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다.

청년을 대상으로 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은 전국에서 처음이며, 광주 시 청년정책의 기본 목표를 담은 '청년당당'을 슬로건으로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청년당당 카드'로 이름을 정했다.

신청기간은 30일부터 6월12일까지이며, 방문, 우편, 전자메일로 접수한다. 문의 광주일자리 One-Stop지원센터 062-613-5993, 광주시 청년정책과 062-613-2712.

서구문화센터 전광판도 방사선 정보 제공

광주시 서구 품급 사거리 서구문화센터 앞 전광판에 한빛원전의 방사선량 값이 실시간 제공되고 있다.

광주시는 한빛원전이 시와 50km 내에 위치해 방사능 누출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원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빛고을로 전광판 표출에 이어 서구문화센터 앞 전광판에도 방사선량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고 밝혔다.

방사선량 값 전광판 표출은 민선6기 온전한 시장의 공약이자, 광주·전남상생발전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방사선량 값의 평상 범위는 0.05~0.30마이크로시버트이며, 1마이크로시버트 이상일 때 경고, 1000마이크로시버트 이상일 때 비상단계에 해당하며, 현재는 0.110마이크로시버트로 '정상'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광판 표출로 광주시는 한빛원전 방사능 누출상황 사고 발생 시 이를 시민에게 바로 알려 유사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한빛원전 방사능 누출사고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현장 대응요령을 제작해 유관기관과 단체, 초·중·고교 등에 배부하는 등 시민들이



한빛원전 방사선량 값이 표시되고 있는 서구문화센터 앞 전광판.

원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안치환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대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원전 방사능재난 발생에 대비 시민들에게 원전 상황을 실시간 알려 신속한 재난 대응과 안전사고에 민반의 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삼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시술 전

시술 후

시술 전

시술 후

대산 종합 인테리어 사업부

신축건물 설계시공 삼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짐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심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광주 광역시 북구 증음동 373-14번지 1층 광주역 뒤 증음삼거리 부근

010-8628-0482